3rd Week, August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Vol. 3

JRI 제주연구원 Jeju Research Institute | www.jri.re.kr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 주간 도내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 언론의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초자치단체, 기본계획, 재정, 감귤
경제·관광	관광객, 여행, 상승, 소비, 캠페인
지역·사회	희생자, 업체, 태풍, 평가, 교통

※ 분석 기간 : 8월 12일~8월 16일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뉴제주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8페이지 참고)

정치·행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적용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기초자치 단체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 주민투표 실시 촉구
	기본계획	-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재정	- 2025년도 예산 편성 방향 - 재정 악화 우려 - 예산 요구 및 편성
	감귤	- 재배면적 감소 - 감귤 조수입 증가 - 농업 혁신성장 사업

○ 경제·관광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9~10페이지 참고)

경제·관광	관광객	- 7월 제주 방문 관광객 증가 - 광복절 연휴 관광객
	여행	- 제주생태관광주간 운영 - 여행 품질 혁신 캠페인
	상승	- 국제선 항공편 증가 - 관광객 증가와 소비 상승
	소비	- 소비 촉진 캠페인 - 신용카드 사용액 감소
	캠페인	- 제주관광 대혁신 캠페인 - 범도민 소비촉진 캠페인

○ 지역·사회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11페이지 참고)

지역·사회	희생자	- 광복절 기념 행사 - 제주4·3 사건 논란
	업체	- 불법 도구를 사용한 수산물 포획 단속 - 전기차 화재 대응
	태풍	- 태풍 대비 - 낙뢰와 폭우 피해
	평가	- 해양경찰청 평가 대회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평가
	교통	- 낙뢰로 인한 교통 혼잡 - 크루즈선 화재로 인한 교통 통제

❐ 주간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 중국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탄소피크와 탄소중립을 위한 표준 및 계량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음. 2025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탄소 배출 산정 표준 연구, 제품의 탄소발자국 및 탄소라벨 표준 수립, 탄소 제거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한 16대 과제를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

✓ **중국 과학기술부는 기업의 혁신 역량을 평가하고 금융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혁신포인트제'를 도입**함. 이 제도는 기술 혁신, 성장 경영, 보조 지표를 포함한 1급 지표 3개와 2급 지표 18개로 구성되며, R&D 비용, 첨단기술 제품 매출액, 대학 졸업자 채용 규모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

✓ 중국에서 문화와 여행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 스타일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교과서를 따라가는 여행', '전통 명절 민속 체험' 등이 부상하고 있음. **중국 각 지역이 문화적 요소를 활용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를 추진 중**

✓ **중국은 경제 사회 발전의 전면적 녹색 전환 가속화를 위해 최초의 국가 차원 문건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오염물 및 탄소 배출 감축, 자원 이용** 효율 개선을 목표로 하고, 2035년까지 녹색 저탄소 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분야의 녹색 전환을 강조

✓ **중국은 서부 육해(陸海) 신통로를 통해 서부 지역과 동남아, 남아시아 등과의 무역을 촉진, 물류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이 통로의 목적지는 523개 항구로 확대되었고, 철도-해상 복합운송 열차의 운송 품목은 1,157종으로 증가

✓ **중국 지방정부는 2024년 하반기 재정 정책으로 경제 발전 촉진, 재정 운용 최적화, 부채 위험 예방을 목표로 설정**함. 쓰촨성은 자동차 및 가전 교체를 위해 5억 1,700만 위안 보조금을 지원하고, 상하이시는 국제경제센터 등 '5대 센터' 건설과 3대 선도산업 육성을 통해 재정 정책 강화 추진

✓ **중국은 장애인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일자리 우선 정책에 포함**함. 공공 훈련 센터에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친화적인 훈련 시설을 제공해 기술 향상과 취업 기회를 늘릴 예정

✓ 상하이는 2027년 말까지 모든 버스와 택시를 신재생에너지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음. 노후 버스를 폐차하고 매년 6,200대의 신재생에너지 버스를 도입하며, 택시도 매년 2,800대를 전환할 예정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는 전기·전자(E&E)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 반도체 전략(NSS)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글로벌 투자자들이 말레이시아에 대한 투자를 확대 중이며, 인피니언,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

○ 베트남

✓ 베트남은 전기차 이용 촉진과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세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9월 중순까지 중앙정부 승인을 신청할 예정

○ 태국

✓ 태국은 2030년까지 글로벌 기술 인재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전략적 위치와 우호적인 정책을 활용하고 있으며, 스마트 비자 프로그램과 규제 완화로 외국인 인재 유치를 강화하고 있음. 태국은 강력한 디지털 인프라와 외국인 인재를 위한 거주 환경 개선,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며, 숙련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정

✓ 태국산업연맹(FTI)은 값싼 중국산 수입품이 현지 제조업체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관세 인상을 촉구함. FTI는 정부에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CFTA) 하에 새로운 관세 적용을 검토할 것을 제안

○ 필리핀

✓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스는 맥킨지앤컴퍼니 CEO와 만나 필리핀의 경제 전환 방안을 논의하며, 협력적 접근을 강조함. 맥킨지와의 협업은 필리핀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필리핀 외교부 장관 엔리케 마날로는 한국 방문 중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논의**하고, FTA 조기 비준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양국은 2024년 말까지 공동선언문을 확정할 계획이며, 마날로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

○ 일본

✓ **일본 경제산업성은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금융 기준을 발표**했으며, GX 추진 기구가 채무 보증이나 출자를 통해 리스크를 보완할 예정임. 이 기구는 1,000억 엔 기금을 기반으로 보증 업무를 수행하며, 보증 한도를 1조 엔으로 설정함. 정부는 이 지원을 통해 150조 엔의 투자를 유치할 예정

✓ **홋카이도에서 공항과 철도역을 연결하는 이차 교통망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며, 버스 회사들이 협력하여 예약·결제 시스템을 통합해 관광객의 지역 순환을 촉진**하고 있음. 이는 렌터카 의존도를 줄이고, 공공 교통수단을 강화해 젊은 층과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일본은 아세안과 함께 전력, 운송, 산업 분야에서 탈탄소 정책 협조를 추진하며, 수소 및 에너지 절약 기술을 제공할 예정**임. 8월 21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 제로에미션 공동체(AZEC) 각료 회의에서 공동 성명에 합의할 예정

✓ **일본원연이 아오모리현에 건설 중인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의 완공 시기를 2024년에서 2026년도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현재 내진 설계 및 구조 설계 재검토가 진행 중이며, 9월 완공 목표 유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2년 반 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큼. 최종 결정은 8월 말 규제위원회의 심사에서 이루어질 예정

✓ **나가사키 국제대학은 관광을 통한 지역 창생을 목표로 다양한 연구와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2023년부터 '크루즈 관광'과 '양조장 투어리즘'을 주제로 관광 수요 회복에 맞춘 전략을 수립 중

JRI 제주연구원

Contents

☑ 언론분석: Word Cloud

☑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1 언론분석: Word Cloud

○ 2024년 8월 12일~8월 16일 기간, 제주 주요 7개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 분야의 관련 보도 총수는 약 700건임

- 이 중 정치·행정 분야 뉴스 233건, 경제·관광 분야 164건, 지역·사회 분야 303건임

* 제주 대표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뉴제주일보, 제주의 소리, 헤드라인제주**

○ 164건 정치·행정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초자치단체, 기본계획, 재정, 감귤** 등 키워드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Cloud

○ 정치・행정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정치・행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적용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 전국 최초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관련 조례를 제정, 9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 ·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제도 확대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사 표명 · 제주도에서 19개 마을이 참여 중이며, 관련 법률 개정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구 제기
	기초자치 단체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올해 안에 실시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공동 건의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촉구 건의안을 공식 채택 - 주민투표 실시 촉구 ·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장 선출을 위해 주민투표가 올해 안에 필요하다고 강조.
	기본계획	-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 오영훈 제주지사가 정부에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결단을 요청 · 재정 건전성 우려: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이후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마련 필요성 제기 · 기본계획 수립 중요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설치 및 기본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는 의견
	재정	- 2025년도 예산 편성 방향 · 제주도는 고물가, 고금리에 대응하여 서민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 활력 지원에 재정을 집중할 계획 - 재정 악화 우려 · 도민 60%가 내년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환경 분야 우선 투자 필요성 제기 - 예산 요구 및 편성 · 농축산식품 분야 예산 편성 사업 발굴 보고회에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 편성 논의
	감귤	- 재배면적 감소 · 지난 20년간 제주지역 감귤 재배면적이 20%가량 감소, 다른 과수로 대체되는 경향 - 감귤 조수입 증가 · 감귤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조수입은 2.8배 증가 - 농업 혁신성장 사업 · 고품질 노지감귤 생산 선도농가 지원 등 혁신성장 사업에 포함

○ 164건 경제·관광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관광객, 여행, 상승, 소비, 캠페인** 등 단어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Cloud

○ 경제·관광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경제·관광	관광객	– 7월 제주 방문 관광객 증가 · 7월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1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6만 4000명이 증가함. 외국인 관광객 수는 18만 2000명으로, 중국과 일본 노선의 국제선 증편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 – 광복절 연휴 관광객 ·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약 22만 2000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 국내선 항공편은 감소했지만 국제선 항공편과 크루즈 입항이 증가하여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
	여행	– 제주생태관광주간 운영 · 제주도 생태관광지원센터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제주생태관광주간을 운영하며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 – 여행 품질 혁신 캠페인 ·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제주관광 대혁신 캠페인’과 ‘여행 품질 혁신’ 등이 제주 관광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여행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됨
	상승	– 국제선 항공편 증가 ·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국제선 항공편이 전년 대비 77.2% 증가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제주 방문이 증가 – 관광객 증가와 소비 상승

		· 관광객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와 관광서비스업의 개선은 더디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내국인 관광객의 소비는 감소한 반면,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소비	– 소비 촉진 캠페인 · 제주특별자치도는 연말까지 '착한 소비왕'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 – 신용카드 사용액 감소 · 6월 제주에서 내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3.5% 감소하며, 소비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캠페인	– 제주관광 대혁신 캠페인 ·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관광 대혁신 캠페인'은 제주 관광의 이미지 개선과 여행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캠페인은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함 – 범도민 소비촉진 캠페인 · 제주도는 범도민 소비촉진 캠페인을 통해 도민들의 소비를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양한 인센티브와 실천 과제가 제안됨

○ 303건 지역·사회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희생자, 업체, 태풍, 평가, 교통** 등 키워드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Cloud

○ 지역·사회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지역·사회	희생자	- 광복절 기념 행사 ·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독립유공자와 희생자에 대한 경의와 추모가 진행됨.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소개됨 - 제주4·3 사건 논란 · KBS에서 방영 예정이었던 다큐멘터리 '기적의 시작'이 제주4·3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발생함
	업체	- 불법 도구를 사용한 수산물 포획 단속 · 서귀포해양경찰서에서 불법 도구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 행위를 단속하여 12명의 비어업인을 적발. 이는 지역 업체와 어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침 - 전기차 화재 대응 ·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제주도가 충전율을 8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태풍	- 태풍 대비 ·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제주를 방문하여 태풍 대비 안전 시설물 점검과 선제적 대응을 지시. 어선 피항 및 연안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었음 - 낙뢰와 폭우 피해 ·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제주 전역에서 약 500회의 낙뢰와 폭우가 발생, 항공기 결항과 지연 운행 등의 피해가 발생함
	평가	- 해양경찰청 평가 대회 · 제주해양경찰청에서 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를 개최, 검문검색 및 응급처치 등의 평가를 진행.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함정은 해양경찰청장 주관 경연대회에 참가 예정 -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평가 ·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52.8%의 시설이 화재 안전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교통	- 낙뢰로 인한 교통 혼잡 · 8월 15일과 16일 제주 전역에서 낙뢰와 폭우로 인해 항공기 결항과 지연이 발생하여 교통 혼잡이 심화됨 - 크루즈선 화재로 인한 교통 통제 · 제주항에 입항한 크루즈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승객 수천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일시적인 교통 통제가 이루어짐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탄소피크·탄소중립 표준 계량 체계 강화 방안 발표** -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를 포함한 여러 부처가 탄소 피크와 탄소중립을 위한 표준 계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행동 방안을 발표함. 이 문건은 2025년까지 '쌍탄소' 표준 및 계량 업무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를 위해 16대 중점 과제를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임 - 쌍탄소' 표준 수립을 위한 8대 과제는 기업 탄소 배출 산정 표준 연구, 제품의 탄소발자국 및 탄소라벨 표준 수립, 프로젝트별 탄소 배출 저감 표준 공급 확대, 탄소 제거 기술 개발 등으로 구성됨. 또한, 공업 분야의 에너지 소모 기준을 강화하고, 제품 에너지 효율 표준을 업데이트하며, 중요 제품 및 설비의 순환 이용에 관한 표준 연구도 포함됨 - '쌍탄소' 계량 체계 수립을 위한 8대 과제에는 탄소 계량 기초 역량 확보, 관련 계량기기 연구·제작 및 응용 강화, 탄소 배출 산정을 위한 계량 시스템 구축, 핵심 범용 탄소 계량 기술 연구 등이 포함됨. 또한, 탄소계량센터를 구축하고, 계량 기술 규범 개선 및 에너지 계량의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중국, 기업 혁신 역량 평가를 위한 '혁신포인트제' 도입** - 최근 중국 과학기술부가 '혁신포인트제' 업무 지침을 발표함. 이 제도는 기업의 혁신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금융 투자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재무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 설계됨.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기술 혁신, 성장 경영, 보조 지표 등이 포함됨 - '혁신포인트제'는 1급 지표 3개와 2급 지표 18개로 구성되며, 기술 혁신 지표는 R&D 비용과 기술 계약 체결액 등을 포함함. 성장 경영 지표는 첨단기술 제품 매출액과 순자산 이익률 등으로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구성되며, 보조 지표에는 대학 졸업자 채용 규모와 벤처투자 유치 규모 등이 포함됨 - 과학기술부는 국가과학기술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정부의 포인트제 데이터를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 기업을 추천할 계획임. 또한, 모든 데이터는 합법적이어야 하며, 지방 관리 부처는 데이터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정무 데이터플랫폼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 **중국, 문화와 여행 결합한 관광 시장 확대** - 올여름 중국에서 문화와 여행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 스타일이 인기를 끌고 있음. ‘교과서를 따라가는 여행’과 ‘전통 명절 민속 체험’ 등 다양한 여행 형태가 부상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는 유명한 먹거리를 홍보하며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음. 이를 통해 문화적 요소를 활용해 지역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음 - 쓰촨성 주자이거우현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 덕분에 여름 휴가 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이 몰렸으며, 선셴츠와 아이칭하이 등 인근 관광지에도 많은 인파가 방문하고 있음. 2024년 상반기 주자이거우현을 찾은 관광객은 약 350만 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한 수치임 - 산시성 시안에서는 ‘일대일로’ 참여국의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대 당나라 궁전의 혼례 체험 행사가 열려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산시성 타이위안에서는 지역 특산 먹거리인 ‘꼬치구이’가 인기를 끌고 있음. 타이위안의 꼬치구이는 다양한 소스를 골라 찍어 먹는 방식으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음
	○ **중국, 경제 사회 발전의 전면적 녹색 전환 가속화 방안 발표** - 2024년 8월 11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경제 사회 발전의 전면적 녹색 전환 가속화를 위한 의견을 발표함. 이는 중국이 국가 차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원에서 마련한 최초의 녹색 전환 문건으로, 지역 발전, 산업 구조, 에너지, 교통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녹색 전환 체계를 포괄함 - 문건에서는 전면적 녹색 전환을 위한 2단계 목표를 제시함. 1단계는 2030년까지 오염물 및 탄소 배출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주요 자원의 이용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2단계는 2035년까지 녹색 저탄소 발전 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자원의 이용 효율을 국제 선진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특히 에너지 분야의 녹색 전환에 집중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말 기준 재생 에너지 설비용량은 전체 에너지 설비용량의 53.8%를 차지함. 2023년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량은 2012년 대비 26% 감소, 탄소 배출 강도는 35% 줄어드는 성과를 보임
	○ **중국, 서부 육해 신통로로 무역 및 물류 효율성 증대** - 중국은 서부 육해 신통로를 통해 서부 지역과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등의 무역을 촉진하고 있으며, 물류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하고 있음. 지난 5년간 이 통로의 목적지는 166개 항구에서 523개 항구로 증가하였고, 철도-해상 복합운송 열차의 운송 품목은 1,157종으로 확대됨. 현재 중국 18개 성의 72개 도시와 전 세계 124개 국가 및 지역의 523개 항구로 연결되어 있음 - 2024년 8월 2일 기준, 서부 육해 신통로 철도-해상 복합운송 열차의 화물 운송량이 50만 TEU를 돌파하며 동기 대비 최고치를 기록함. 이를 통해 '일대일로' 참여국의 상품들이 중국으로 신속하게 수입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의 소고기, 태국의 두리안, 라오스의 바나나, 인도네시아의 커피, 남아프리카의 광석 등 다양한 상품들이 중국 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음 - 서부 육해 신통로는 물류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하고 있음.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예를 들어, 충칭은 이 통로를 통해 라틴아메리카산 소고기를 저렴하게 수입하고 있으며, 운송 시간이 20일 이상 단축되고, 컨테이너당 약 1만 5천 위안의 비용이 절감되고 있음. 최근 서부 육해 신통로의 영향력은 중국 서부 지역에서 전국 및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운송 방식도 '편도'에서 '왕복'으로 전환되고 있음
	○ **중국 지방정부, 2024년 하반기 재정 정책 목표 설정** - 중국 지방정부들은 2024년 하반기 재정 정책의 주요 목표로 경제 발전 촉진, 재정 운용 체계 최적화, 부채 위험 예방을 설정함. 이를 위해 주요 분야에 대한 재정 지출을 확보하며, 경제 발전을 위한 지출 강도를 유지할 계획임. 예를 들어, 쓰촨성은 자동차 및 가전 이구환신 사업을 위해 5억 1,70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올해 연말까지 자동차 6만 대와 가전제품 200만 개의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상하이시는 국제경제센터, 국제금융센터, 국제무역센터, 국제해운센터,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등 '5대 센터' 건설 목표를 달성하고, 집적회로, 바이오 의약, 인공지능 등 3대 선도산업을 육성하여 국가 중대 전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통해 상하이는 재정 정책의 시행 강도를 높일 계획임 - 부채 문제 해결 역시 하반기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됨. 장쑤성은 융자 플랫폼의 부채 증가율을 엄격히 관리하며, 특히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부채 상환 일자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임
	○ **중국, 장애인 취업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발표**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등 부처는 장애인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직업훈련·환경개선 등 장애인 취업 지원 확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이 문건에서는 장애인 취업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확대를 각급 정부의 일자리 우선 정책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취업 지원 정책을 의료·재활, 교육·훈련, 사회보장, 권리 보장 등의 정책과 연계하기로 함. - 장애인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 훈련 센터에서 장애인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온·오프라인 기능 훈련을 확대할 계획임. 또한, 장애인 훈련 시설을 장애인 친화적으로 업그레이드할 방침임. 이를 통해 장애인의 기술 향상과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장애인의 취업 경로 확대를 위해 지역별 노동집약형 산업을 육성하고, 특히 시각장애인 안마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중앙 예산을 투입해 성급 시각장애인 안마 병원을 설립할 예정임. 또한, ‘인터넷+’ 모델을 통해 재택근무를 돕고 전자상거래, 수공 작업, 라이브 이커머스, 숏폼 촬영, 오디오북 등 분야에서 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며, 플랫폼 기업들이 장애인의 취업과 창업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원할 계획임
	○ **상하이, 2027년까지 모든 버스와 택시 신재생에너지 차량으로 전환** - 상하이는 최근 《상하이시 교통 분야 대규모 시설 장비 업그레이드 특별 작업 방안(2024-2027년)》을 발표하며, 2027년 말까지 모든 버스와 택시를 신재생에너지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임. 이 방안은 노후 버스를 신속히 폐차하고 순수 전기 등 신재생에너지 버스를 적극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매년 전체 버스의 9% 이상을 업그레이드해 총 6,200대의 신재생에너지 버스를 도입할 예정임 - 택시와 항공,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도 친환경화할 계획임. 매년 약 2,800대의 택시를 신재생에너지 차량으로 교체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스마트 네트워크 택시를 시범 운영해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킬 예정임. 항공 부문에서는 연간 50대의 항공기를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항공기로 업그레이드하고, 지속가능항공유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SAF) 시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임 - 지하철 설비도 업그레이드할 방침으로, 매년 장애인 및 노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약 15대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신규 설치할 계획임. 또한, 매년 설계 수명이 다한 지하철 약 12대를 업그레이드할 예정임. 이러한 계획을 통해 상하이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적극 보급하고자 함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글로벌 기술 공급망에서 전략적 위치 강조** - 자프룰 압둘 아지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은 전기·전자(E&E)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말레이시아의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잠재적 역할을 강조함. 말레이시아의 50년 역사를 가진 반도체 부문은 미중 대립 등 글로벌 기술 생태계 변화 속에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 말레이시아는 국가 반도체 전략(NSS)을 도입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을 목표로 하며, 인피니언,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말레이시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또한, AI 생태계 지원과 글로벌 투자자의 리스크 완화를 위해 로봇공학, AI 구동 물류 공급업체, 산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적극 모색 중임 - 다양한 정부 이니셔티브를 통해 말레이시아는 미국, 유럽, 아시아 전역의 반도체 산업에 약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특히, NSS 이니셔티브는 인재 육성, 현지 기업 지원, 고부가가치 프론트엔드 활동 인센티브 제공을 목표로 함
	○ **맥시스, 화웨이와 5G 첨단 공동 혁신 센터 협력** - 맥시스(Maxis) 말레이시아와 화웨이 테크놀로지스 말레이시아는 5G 기술에 중점을 둔 공동 혁신 센터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함. 이번 협업은 고객 경험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탐색하는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것을 목표로 함 - 파트너십은 모바일 네트워크 확장, 모바일 엣지 컴퓨팅,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며, 디지털화, 인공지능(AI), 머신러닝(ML)을 활용해 네트워크 운영 효율을 최적화하는 방안도 조사할 계획임 - 맥시스는 이번 협업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부문을 지원하고 글로벌 통신 및 기술 시장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전환 의제를 가속화하고, 말레이시아를 아세안 기술 허브로 자리매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베트남	○ **베트남, 전기차 충전소 전기세 보조금 지원 계획 발표** - 베트남 당국은 전기차 이용 촉진과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전기세 보조금 지원 계획을 발표함. 해당 보조금 제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승인을 9월 중순까지 신청할 예정임 - 베트남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며, 전기차 생산, 수입, 전기차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현재 베트남은 15만 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 포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빈패스트(VinFast)가 소유하고 운영 중임 - 베트남 정부는 전국의 모든 도시 지역에 공공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기존에 등록료 면제와 신규 전기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등의 정책을 시행한 바 있음. 이러한 정책들은 베트남의 전기차 채택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태국	○ **태국 대기업, 필리핀 농업 부문에 15억 달러 투자 약속** - 태국은 전략적 위치, 풍부한 자원, 우호적인 정책을 활용하여 2030년까지 글로벌 기술 인재 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 내용은 '기술소스 글로벌 서밋 2024'에서 발표되었으며,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행사에서 주요 산업계 리더들은 지식 교류 활성화와 미래 인재 교류 방안을 논의함 - 태국은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스마트 비자 프로그램과 완화된 규제를 제공하며, 개인 인재, 스타트업, 투자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혜택을 강화하고 있음. 태국은 또한 전국 80%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와 약 99.9%의 젊은 성인 스마트폰 사용률 등 강력한 디지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 - 고령화 사회로 인해 숙련 인력 부족에 직면한 태국은 지식 이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외국인 인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외국인 인재에게 거주 환경 개선, 세제 혜택, 고급 일자리 창출 등의 이니셔티브를 계획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알파 세대가 세계 노동시장의 약 1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태국 산업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촉구** - 태국산업연맹(FTI)은 값싼 중국산 수입품이 현지 제조업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정부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요청함. 2024년 상반기 동안 태국에서는 약 667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으며, 이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수치임 - 중국산 제품의 유입으로 인해 아세안 지역 내 태국산 전기제품과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Temu)의 아세안 진출은 태국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태국산업연맹은 정부가 현지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CFTA) 하에 새로운 관세 적용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 또한, 태국 산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의 산업 과잉 용량 등 경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필리핀	◯ **필리핀 대통령, 맥킨지앤컴퍼니 CEO와 경제 전환 논의** - 8월 15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밥 스턴펠스 맥킨지앤컴퍼니 CEO와 회담을 진행하며, 필리핀의 경제 전환을 위한 방안을 논의함. 마르코스 대통령은 세계 주요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앤컴퍼니로부터 귀중한 통찰력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의 경제 전환을 위해 정부가 협력적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임을 강조함. 맥킨지앤컴퍼니는 전략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로 유명하며, 필리핀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맥킨지와의 협업은 필리핀의 향후 경제 정책과 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이번 회담은 경제 발전을 위해 국제적 전문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필리핀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며, 필리핀의 경제 정책 방향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함
	◯ **필리핀과 한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추진** - 필리핀 외교부 장관 엔리케 마날로는 한국 방문 중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양국 관계 강화를 논의하였으며,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 위한 협의를 진행함. 또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비준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 마날로 장관과 조태열 장관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2024년 말까지 확정하기로 합의함. 마날로 장관은 공식 방문 기간 동안 한덕수 한국 총리와 만나 비무장지대(DMZ)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하며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논의함 - 마날로 장관은 필리핀이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며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한다고 강조함. 필리핀은 서울과 평양 모두 평화적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을 약속함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경제산업성, 탈탄소 금융 지원 기준 발표** - 경제산업성은 8월 13일,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기업의 기술 개발을 금융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을 발표함. 민간 금융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기구가 채무 보증이나 출자를 통해 지원할 예정임 - GX 추진 기구는 7월 1일에 업무를 시작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채무 보증 등을 담당함. 경제산업성은 탈탄소 투자가 앞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일본 기업이 보유한 신기술이 사회에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에 포함함 - 이 기구는 1,000억 엔의 기금을 바탕으로 보증 업무를 수행하며, 7월에 발표한 업무 방법서에서는 보증 한도를 기금의 10배인 1조 엔으로 규정함 - 실용화 이전의 기술 지원에 있어 개발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민간 금융기관만으로는 충분한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됨. GX 추진 기구의 지원을 계기로 정부는 관민 협력을 통해 150조 엔의 투자를 유치할 목표를 세움
	○ **홋카이도 관광, 버스회사들이 순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 - 홋카이도에서는 공항과 철도역을 연결하는 이차 교통망을 확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도호쿠 지역의 버스 회사들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여러 버스 노선을 예약·결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관광객의 지역 순환을 촉진하고, 렌터카나 자가용에 의존하지 않고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아칸 버스는 다른 버스 회사들과 협력하여 예약 및 결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으며, 여름과 겨울 시즌에 관광객의 약 절반에서 80%를 외국인 관광객이 차지함. 이는 렌터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버스 및 철도 같은 공공 교통수단을 강화해 젊은 층과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임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 이 외에도 홋카이도 에어포트(HAP)는 이차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아사히카와 공항에서 택시 배차 앱 'GO'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배차를 지원하고 있음. 이는 비즈니스 여행객, 겨울철 운전을 피하고 싶은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맞춘 조치임 - 물류 문제와 인구 감소로 인해 교통 업계의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차 교통망 정비를 통한 관광 수요의 확보는 지역 교통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되고 있음
	◯ **아시아 탈탄소, 전력·운송에서 정책 협조 합의 예정** - 일본 정부는 아세안(ASEAN)과 함께 전력, 운송, 산업의 3개 분야에서 탈탄소 정책 협조를 추진할 계획임.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로드맵 작성과 규칙 정비에 협력하고, 일본 기업이 강점을 가진 수소 및 에너지 절약 기술을 제공하여 아시아의 탈탄소를 지원할 예정임 - 8월 21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 제로에미션 공동체(AZEC) 각료 회의에서 3개 분야의 협력 내용을 포함한 공동 성명에 합의할 예정이며, 일본에서는 사이토 다케루 경제산업상이 참석함. 전력 분야에서는 석탄 및 천연가스 등 화력발전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수소 및 암모니아로의 연료 전환과 이산화탄소(CO2) 포집 및 저장(CCS) 법 제정을 지원할 계획임 - 운송 분야에서는 재생 항공 연료(SAF)와 바이오 연료의 사용 확대를 위한 아시아 내 공급망 구축에 합의할 예정이며, 산업 분야에서는 공업단지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 절약 기술 도입에 협력할 계획임. 각국은 배출량 거래 제도 및 배출 저감에 대한 시장 구축에서도 협력할 예정임 - AZEC는 2022년 1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제안했으며, 미얀마를 제외한 아세안 9개국과 일본, 호주가 참여하고 있음. 10월에는 라오스에서 제2차 정상 회담이 예정되어 있음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 **일본원연 재처리 공장, 완공 시기 2026년도로 연기** - 일본원연이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건설 중인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의 완공 목표 시기를 2024년 9월 말에서 2026년도 내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이 8월 17일 확인됨. 이번 연기는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심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1993년 착공 이후 27번째 연기가 될 전망임 - 재처리 공장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국가의 '핵연료 사이클'의 핵심 시설로, 아오모리현 무쓰시의 사용후 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에서 최장 50년간 보관된 후 옮겨질 예정임. 현재 설계와 공사 계획 인가에 대한 규제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으나, 신청서 불비와 내진 설계를 위한 '지반 모델' 재검토 및 '내진 평가'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일본원연의 마스다 나오히로 사장은 7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내진 설계와 구조 설계의 전체 계획을 9월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9월 완공 목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2년 반 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현지 자치단체에 보고한 후 8월 말에 열리는 규제위원회의 심사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임
	◯ **나가사키 국제대학, 관광을 통한 지역 창생 추진** - 2000년에 개교한 나가사키 국제대학은 '환대의 탐구와 실현'을 목표로 관광학 교육과 연구에 집중해 왔으며, 인바운드 관광객 수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제관광연구소를 중심으로 관광을 통한 지역 창생을 목표로 조사 연구와 실천 활동을 펼치고 있음. 2023년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관광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크루즈 관광'과 '양조장 투어리즘'을 주제로 인바운드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함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 나가사키 국제대학의 국제관광연구소는 다양한 분야의 교수진이 참여하여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관광 진흥의 사회적, 경제적 긍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2023년 가을, 사세보항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크루즈 승객 순환 대책'을 주제로 이벤트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학생들은 사세보 관광 매력을 전하기 위해 관광 가이드, 독특한 체험 이벤트, 맞춤형 관광 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함 - 크루즈 승객의 순환 촉진을 위한 과제로는 사세보 역 앞 상점가 활성화가 제시되었으며, 관광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모색 중임. 또한, 나가사키 국제대학은 양조장 투어리즘을 통해 지역 특유의 매력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고, 사세보 시내에서의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음